

# 문헌정보학 분야의 질적 연구 동향과 과제

## Some Trends and Issues of Qualitative Research Method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이 명 희(Myeong-Hee Lee)\*

### 초 록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질적 연구의 특성과 유형을 알아보고 질적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그리고 이들을 저해하는 요인들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의 공통점과 보완점을 살펴보았으며, 국내 문헌정보학계에서 수행된 질적 연구의 수준을 가늠해 보고 질적 연구방법으로 수행된 연구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질적 연구방법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점은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의 병행 사용, 연구자의 주관성 극복위한 충분한 자료 제시, 연구과정의 철저한 관찰 및 조사과정의 반복, 타당도와 신뢰도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 설계, 다양한 질적분석 도구의 활용, 자료의 분석과 해석에서의 엄밀성 등으로 나타났다.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tudy the meanings and characteristics of qualitative research method in LIS. As the philosophy and epistemology of qualitative research are widely different from those of quantitative research, the meaning of validity and reliability must be interpreted in its own structure and dimension. Essentially qualitative researchers seek to understand and interpret the world of others from their own viewpoints which basically tend to be subjective. Accordingly, qualitative researchers' understandings and interpretations are met with readers' subjectivity. By carefully analyzing the nature of qualitative research in LIS, I tried to point out some problems in terms of validity and reliability and practical strategies. Six problems issued in the qualitative research method are presented.

키워드: 질적 연구, 양적 연구, 타당도, 신뢰도, 문화인류학, 참여관찰, 면접, 현상학  
qualitative research, quantitative research, validity, reliability, observation, interview,  
anthropology, phenomenology

---

\* 상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mehelee@smu.ac.kr)  
논문접수일자 2005년 11월 21일 논문심사일자 2005년 11월 25일 게재확정일자 2005년 12월 15일

## 1. 서론

과학적 연구는 전통적으로 자연과학적 패러다임에 근거하고 있다. 자연과학에서는 이 세계가 모든 사람에게 의해 동일하게 경험되고 인식되는 객관적 실체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고 이러한 실체는 계량적인 절차를 통해 경험적인 검증이 가능하다고 한다. 자연과학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은 현상을 설명하고 예언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정확한 법칙을 발견하는데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은 문헌정보학 연구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문헌정보학의 제 영역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설명할 때에는 양적인 자료의 수집과 통계적인 추리과정을 거쳐 특정한 변인들간의 인과관계를 중시한다. 이러한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도서관 현상을 예언하고 통제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을 찾아내는데 있으며, 이러한 접근법은 다른 학문분야와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문헌정보학계를 지배해왔다.

그러나 최근에 인간현상과 자연현상의 현저한 차이가 지적되면서 인간현상의 독특한 영역에 적합한 연구접근이 제안, 시도되어 왔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인간 개개인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각 개인 특유의 경험세계가 있는 그대로 의미 있게 그리고 가치 있게 연구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특정한 이론이나 전문가가 생산해 낸 가설이나 이론에 부합되는 영역만을 중요시하고 가치 있게 판단하는 기존의 생각을 비판한다. 특정한 인간이나 현상이 나름대로 보유하고 있는 의미세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이해하고 탐구하는 자세를 강조한다. 또 연구자에 의해 연구대상이 임의로 선정됨으로써 각 개인의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 세계가 조명

되지 못하고 특정한 개인만이 부각되는 위험성과 오류에 대해 지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방법을 양적연구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질적 연구라고 포괄적으로 부르고 있다.

최근의 문헌정보학 연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연구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방법론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의 방법론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문헌정보학 연구의 방법론이 지나치게 양적 연구 위주로 치우쳐 편협성을 지니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시각에서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주장은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를 중심으로 특히 강조되고 있는데, 대표적 연구자인 김정근(1999)은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양적 연구로 대표되는 실증주의적 경향이 본격적으로 대두된 것은 미국 시카고대학에 도서관학대학원(GLS)이 설립되면서라고 주장하는 해리스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 이 시기의 시카고대학 GLS의 초창기 교수들과 학생들이 도서관학 이외에 인문사회과학, 특히 심리학과 사회학 분야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왔으며 이후로 실증주의적 관점에 경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양적 접근법에 의한 연구방법은 비단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만이 아니라 서구의 과학화 이래 온 세계를 지배해 온 학문연구의 주된 주장이기도 하다.

최근 들어 문헌정보학 연구에서 다양한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한 연구논문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의 연구방법만을 사용할 때 나타나는 편향성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현상이다. 특히 김정근이 주장하는

것처럼 문헌정보학 분야의 연구는 도서관 현장이라는 독특한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사서'와 '이용자'라는 "인간적" 요소는 어쩌면 실증주의에 기반한 계량적 접근방법보다는 관계와 과정을 중시하는 질적 접근방법이 더욱 적합할 지도 모른다. 물론 모든 연구가 질적 연구의 방법을 취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질적 방법과 양적방법이 서로 배타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방법은 각각 특유의 연구방법과 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문제의 성격에 따라 어느 연구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때로는 연구 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두 가지 연구방법을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관성, 신축성, 자기임의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질적 연구방법을 잘 못 사용한다면 양적 연구방법보다 그 폐해가 더욱 심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본 연구는 문헌의 분석을 기본으로 하는 문헌연구로서, 먼저 질적 연구의 다양한 유형과 도구를 살펴보고, 양적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질적 연구를 연구답게 구성하는데 기여하는 질적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해 알아보고 이들을 저해하는 요인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는 양립될 수 없는 개념인지 아니면 양립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양자의 공통점과 보완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국내 문헌정보학계에서 수행된 질적 연구의 수준을 기늩해 보고, 질적 연구방법으로 수행된 연구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국내 문헌정보학계 연구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이 연구가 시도되었다.

## 2. 질적 연구의 유형과 특성

데이터 수집방법 등에서 뚜렷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양적 연구와는 달리 질적 연구의 유형간의 구분은 그다지 명료하지 않다. 질적 연구의 주요 유형을 현상학, 문화기술, 사례연구, 상황이론 등으로 다양하게 구분하는 관점이 있는가 하면 문화기술 연구를 자연주의적, 해석학적, 사례연구, 참여관찰, 현상학적 연구 등으로 다양하게 별칭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총체적 관점, 자연주의적 지향, 비처치, 비조작, 맥락 지향성, 참여자의 관점 강조, 관정과 변화 지향, 직접 자료 수집, 풍부한 기술적 자료, 일차적 도구로서의 연구자, 감정이입적 중립성을 지니고 개인적 접촉, 융통성 있는 설계, 귀납적 분석, 의미와 이해의 발견, 장기간의 현장 활동을 들 수 있다(조용환 1999, 92).

Wolcott(1990)는 질적 연구를 크게 1) 문헌연구, 2) 면담연구, 3) 비참여 관찰연구, 4) 참여 관찰연구의 네 부류로 나누고, 그 속에 20가지 연구법을 다시 분류하고 있다. 첫째, 문헌연구의 범주에는 내용분석, 철학적 연구, 역사학적 연구, 문학적 비평을 포함시키고 있다 둘째, 면담연구에는 구술사, 전기, 탐문 저널리즘 셋을 포함시키고 있다. 셋째, 비참여 관찰 연구의 예로는 전문적 감정, 인간의 종적 특성 연구(human ethology), 관찰자 연구, 비개입적 행동연구(nonreactive research)를 들고 있다. 넷째, 참여관찰 연구는 일반적 현장연구와 문화기술적 연구의 두 범주로 다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일반적 현장연구에 후기 구조주의적 연구, 현상학적 연구, 민속방법론적

연구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문화기술적 연구에는 커뮤니케이션 문화기술(ethnography of communication), 지역사회 연구, 민족학, 인류학적 생애사, 미시적 문화기술, 대화분석을 포함시키고 있다.

질적 연구의 주요 유형과 그 특성을 비교하면 표 1과 같다(Gay & Airasian, 2000).

한편,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질적 분석의 도구에는 목록(list), 표(table), 분류표(taxonomy), 계보표(family tree), 그림(figure), 다이어그램(diagram), 그래프(graph), 과정표(flow chart), 인과사슬(causal chain), 순환표(daily/monthly/yearly cycle), 통로표(channel), 대차대조표(balance sheet), 프레임(frame), 지도(map), 관계망(network) 등 다양한 것들이 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질적 연구자들, 특히 문헌정보학 분야의 연구자들이 활용하고 있는 분석의 도구는 거의 목록 등의 한 두가지 정도로 제한되어 있다는 느낌이 든다. 그 점에서 자료를 분석하는 다양한 질적 기법의 개발

과 보급은 향후 질적 연구자에게 주어진 큰 과제 중의 하나이다.

지금까지 질적 연구 분야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해석적 도구는 주제(theme), 전략(strategy), 유형(pattern)이다. 앞으로는 문법(grammar), 양식(style), 모델(model) 등 보다 다양한 해석 도구를 개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연구 결과를 제시하는 방식으로는 관찰과 면담자료에 더하여 연구자 자신의 자의적인 해석의 형태가 가히 지배적이다. 이러한 형태 이외에도 앞에서 열거한 다양한 분석/해석 도구들을 표현도구로 변형하여 활용함으로써 연구의 질을 드높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다양한 분석도구가 거의 사용되지 않는 문헌정보학 분야의 질적 연구과정에 이러한 도구들을 사용하게 되면 보다 정교한 연구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질적 연구의 대표적인 유형인 현장연구를 예로 들면, 현장연구의 종결은 동일한 자료가 반복적으로 수집될 때, 분석 과정에서 반증자료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때, 그리고 대안적

(표 1) 질적 연구의 유형과 특성

	질적 연구 접근			
	현상학	문화기술	상향이론	사례연구
연구 목적	특정 현상에 대한 한명 이상의 개인적 경험을 기술(예,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한 경험)	특정 집단의 문화적 특성과 문화적 상황기술	특정 현상을 기술하고 설명하는 상향이론을 귀납적으로 산출	한 가지 이상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기술하고 연구문제와 이슈를 해결
학문적 기원	철학	인류학	사회학	상업, 법률, 사회과학, 교육을 포함한 다학문적 기원
주요 자료 수집 방법	10명 정도까지의 심층면접	장기간(예, 한달 ~일년)의 참여관찰, 정보원과의 면접	20내지 30명을 대상으로 면접, 관찰 또한 자주 활용	중다 방법(예, 면접 관찰 문서 기록)
자료분석 접근	중요한 진술 열거, 진술의 의미 판단, 현상의 본질 확인	자료에 포함된 문화적 테마에 대한 총체적 기술과 탐색	개방적 코딩에서 출발하여 축을 중심으로 코딩, 선택적 코딩으로 진행	사례에 영향을 미치는 테마에 대한 총체적 기술과 탐색
이야기 보고의 초점	경험의 본질적 또는 불변의 구조(즉 공통적 특성 또는 본질)에 대한 풍부한 기술	백락과 문화적 테마에 대한 풍부한 기술	연구 주제와 인물기술 상향이론 지시로 종결, 명제 열거도 가능	사례의 맥락과 작용에 대한 풍부한 기술, 테마, 이슈 함의에 대한 논의

해석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될 때 이루어져야 한다(조영남 2001). 현지연구를 위해서 인류학자들은 최소한 1년 이상 현지 참여관찰을 해야 한다. 그 까닭은 연구자가 현장에 가서 낯선 문화에 적응하고 현지 주민들과 친밀관계를 형성하는데 최소한 몇 개월의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대개의 인간 활동이 1년을 주기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인류학자들의 경험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현지연구의 시간적 길이는 연구문제의 성격, 현장의 규모와 복잡성, 연구대상이나 현장에 대해 연구자가 갖고 있는 사전 지식의 정도, 그 문화 내부의 규칙과 언어에 연구자가 얼마나 숙달되어 있는가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 3. 질적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양적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신뢰도와 타당도가 중요한 요소인 것처럼 질적 연구에서도 신뢰도와 타당도가 핵심 관심 사항이다. 질적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일명 양적 연구에서의 그것들과 유사해 보이지만 질적 연구의 특성상 약간 차이를 가진다.

#### 3.1 질적 연구의 신뢰도

질적 연구의 신뢰도는 일반적으로 연구의 재생산 가능성(reproducibility)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신뢰도는 서로 다른 연구자들이 동일한 현상을 발견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고, 참여자들이 결과의 의미에 동의하는 정보를 말한다. Goetz와 LeCompte(1984)는 질적 연구

에서 두 종류의 신뢰도를 구분하고 있다 : 외적 신뢰도는 다른 연구자들도 동일한 현상을 발견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동일한 구성 개념을 산출하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를 강조한다. 내적 신뢰도는 다른 연구자들에게 이미 산출된 일련의 구성 개념을 제시했을 때 원래의 연구자가 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자료와 구성개념을 결부시킬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신뢰도는 그 연구가 반복된다면 똑같은 결과를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과정의 특성상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Chatman(1992)은 질적 연구의 신뢰도를 “관찰의 보고가 연구의 전 과정에서 일어난 현상과 일치되는 정도”라고 정의하고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에 열거한 방법을 모두 이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 첫째, 끊임없이 기록한다. 둘째, 연구자 자신을 연구 환경 안에 몰입시킨다. 셋째, 연구자 자신을 다양한 상황에 노출시킨다. 넷째, 연구에서 발견한 것을 다음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3.2 연구의 타당도

질적 연구에서의 타당도는 결과의 정확성 정도를 의미하며, 신뢰도는 타당도를 위한 필수 선행요건이 된다. Goetz와 LeCompte(1984)는 역시 두 종류의 타당도를 구분하고 있다. 외적 타당도는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 즉 구성개념과 전제들이 다른 집단에 적용 가능하도록 산출되거나 정교화 또는 검증된 정보를 의미한다. 반면에 내적 타당도는 연구자들이 자신이 관찰 또는 측정하고자 한 것을 실제로 관찰하

거나 측정할 정도를 말한다.

Eisner(1991)가 질적연구의 원리이자 방법으로 제안한 '전문가 감정(connoisseurship)'은 질적 연구의 내적타당도와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Eisner에 의하면 예술작품의 질 평가에 전문가의 세련된 안목이 요구되듯이 질적 연구를 수행하고 평가하는 데에도 전문가의 감정이 필수적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양적 연구와 달리 질적 연구에는 표준적인 도구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성격상 마련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 감정은 실증적이라기보다는 해석적이고, 논리적이라기보다는 경험적이며, 객관적이기보다는 다분히 주관적이다. 그러나 감정이 아무 근거도 없이 제멋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주장한다. Eisner는 전문가가 제시해야 하는 감정의 세 가지 준거로서 구조적 확실성(structural corroboration), 공감적 타당성(consensual validation), 준거 적합성(referential adequacy)을 들고 있다. 전문가 감정이 제대로 되기 위한 일차적 조건은 감정하는 사람의 자질, 즉 전문성이다. 전문성은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서는 그만큼 수준의 일을 해낼 수 없는 고도의 훈련을 요구하는 능력이다.

Bradley(1993)는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이해를 '연구과정 속에서 연구자가 형성하여 가는 지식과 통찰'이라고 설명하면서 '이해'가 고정된 사실이 아니라 연구과정이 진행되면서 변화하는 것임을 지적한 바 있다. 이는 연구자의 편견을 제어하도록 사전에 치밀하게 설계된 연구방법과 과정에 따라 수행되는 양적 연구와 대비되는 측면이다. 이 때문에 질적 연구는 연구자의 편견을 허용하게 되어 연구자의

주관에 따라 연구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모든 연구에서 연구자의 주관이 완전히 배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연구자의 편파적이며 비합리적인 주관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자는 우선 자신의 연구가 어떠한 관점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분명히 나타내고, 연구의 전 과정을 상세히 기술해야 하며, 자신의 주관적인 관점이 연구 수행과정에서 미쳤을지도 모르는 영향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보고하고 자신의 해석의 한계를 솔직히 진술할 필요가 있다.

내적 타당도란 한 연구에서 발견한 결과들이 얼마나 실제 세계에서 발생하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하여 다룬다. 그러나 질적 연구의 근간을 지탱하는 전제들 가운데 하나는 실제 세계는 총체적이고 다차원적이며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질적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관심 있는 현상에 관련된 사람들의 다양한 시각을 이해하고 인간행동의 복잡성을 맥락적 체제 안에서 발견해내며, 일어나고 있는 사실들에 대한 총체적인 해석을 제시하는 일이다.

질적 연구의 내적 타당도를 위협하는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다(조영남 2001, 316-317).

첫째는 역사로서 역사 또는 다른 사건에 기인하여 연구 중인 현상에 자연적인 변화가 일어나 생기는 양행, 어떤 요소에 변화가 일어났으며, 어떤 요소가 시간이 경과해도 안정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준선의 조건과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요구된다. 둘째 성숙으로서 성숙은 주어진 맥락이나 역량 또는 발달 단계에 대한 참여자의 적합한 또는 규범적인 행동에 대한 정의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생

기는 영향을 말한다. 셋째는 관찰자 요인으로 서 연구자/관찰자의 주관성 제한된 시간과 자료 수집, 또는 여러 방법이 아닌 단일 방법의 활용에 기인하여 실제로 관찰한 것을 잘 못 해석하거나 과잉 해석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넷째는 참여자 선정으로서 연구 현상이 복잡하거나 하위 집단들이 많아서 전부 연구할 수 없을 경우, 의도적 표집이 부적합하게 기술될 가능성, 표집상의 의사결정과 이론적 근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된다. 다섯째는 참여자의 감소 또는 탈락으로서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표본 참여자의 손실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거나 처음 참여자가 누구이며, 탈락자가 누구인지, 왜 탈락했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된다. 여섯째는 비논리적 결론으로서 연구자가 자신의 개인적 주관뿐만 아니라 결과와 참여자들의 다양한 관점에 대한 대안적인 설명을 하지 못할 경우, 부적합하거나 불완전 또는 잘못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을 말한다.

양적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가 선정된 모집단을 설명하고, 조사대상 선정의 객관성 내지는 무작위성을 밝힘으로써 외적 타당도의 범위와 근거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일반화할 수 있는 범위와 근거가 증명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질적 연구가 연구대상의 선정에 있어서 무작위 표본 추출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 목적에 따라 의도적으로 연구대상을 선정한다. 따라서 연구의 결과를 연구 대상 집단을 넘어서 적용하기가 어렵다. 이에 대하여 모집단 중 대다수 집단에 '공통적이고 전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례를 연구함으로써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선정된 연구대상이 모집단의 '공통적이고

전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질적 연구에서는 보통 '일반화'나 '외적 타당도' 대신에 '전이가능성(transferability)'이란 말을 사용한다. 전이가능성이란 연구 상황에 대한 연구자의 작업가설이 다른 상황에도 적용되는 정보를 말하는 것이다. 전이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하여 연구자는 자세한 진술을 토대로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여 독자가 이 연구가 다른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가설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질적 연구에서 외적 타당도 위협 요인도 존재하는데, 첫째는 참여자 선정이다. 이는 다른 연구와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참여자와 선정된 장면을 충분히 기술하여야 한다. 둘째는 연구 상황요소로서 이는 연구 과정, 연구 맥락에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호돈 효과, 그리고 도출된 개념의 속성에 기인하여 연구 중인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을 말한다. 셋째는 역사 요소로서 집단 또는 문화의 독특한 역사적 경험 이 결과의 비교 가능성을 감소시킬 가성을 말한다. 넷째는 구성 개념 요소로서 시간의 경과와 상황에 따라 구성 개념과 일반화의 설명적 의미가 변화될 가능성을 말하는 것으로 비교 가능성을 위해서는 선행 연구와 현재의 결과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내외적 타당도 위협 요인들을 보완함으로써 보다 타당한 질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한편, 질적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삼각검증법(triangulation)이 제안되고 있다(조영남 2001, 317). 이는 다면적인 방법, 즉 연구의 관점과 시간 공간 등을 달리하여 연구를 재검토하는 기법이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세 가지 유형의 삼각검증법을 보면, 첫째는 자료 삼각검증으로 다양한 자료의 원천을 활용하여 신뢰성을 검증하는 방법이다. 둘째는 연구자 삼각검증으로 다수의 연구자들을 참여시켜 지나친 편견과 주관을 배제하여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방법이다. 셋째는 방법론적 삼각검증으로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하여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 4.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의 공통점과 보완점

##### 4.1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의 공통점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의 논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한 가지는 두 접근점의 공통점과 보완점을 탐구해 보는 것이다. Goodwin & Goodwin(1996)에 의하면, 이들 두 연구는 서로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두 접근점은 모두 지식을 산출하는데, 물론 산출된 지식의 형태는 서로 다르다. 양적 연구는 결과, 일반화, 예측, 인과적 설명에 초점을 둔 지식을 산출한다. 반면에 질적 연구는 과정, 외연, 이해, 설명을 강조하는 지식을 산출한다. 지식을 산출한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두 접근간의 유의미한 연계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두 연구 모두가 연구자의 체계적, 전문적인 역할 수행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엄밀성을 가지고 있다. 두 연구가 공통적으로 지니는 엄격성에 대한 강조, 체계적 훈련, 사전연구 성과 등은 두 접근간의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다. 셋째, 두 연구 모

두 결과를 현장과 공유하며, 연구 결과를 논문 또는 텍스트의 형태로 출간하거나 학회를 통해 발표 또는 네트워크를 통해 전파한다. 따라서 산출된 지식을 현장 실행가들과 공유한다는 점에서 두 접근은 동일한 책임감을 지니고 있다. 넷째, 두 연구 모두 측정도구를 활용하며, 측정이 연구 노력의 신빙성을 입증하는데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두 접근 모두 관찰과 면접, 그리고 구조와 개방성 정도는 다르지만 질문지를 활용한다. 같은 양식은 아니지만 상호 유사한 측정도구를 활용한다는 점은 주어진 연구에서 두 접근을 결합할 수 있는 훌륭한 이유를 제공해 준다. 예컨대, 삼각검증을 통해 결과가 유사할 경우 두 접근의 신빙성을 높여 주고, 결과가 서로 다를 경우, 그 이유와 부가적인 연구 영역을 확인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4.2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의 보완점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의 보완점은 각각의 연구를 보다 완벽하게 하거나 서로의 결점을 보완하는 것을 말하는데, 아래의 3가지 점에서 보완점을 말할 수 있다. 첫째, 각 연구를 통해 산출된 지식은 상호 보완적이어서 동일한 연구에서 두 접근을 모두 활용할 경우, 결과는 한 가지 접근만을 채택할 경우보다 완벽하고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둘째, 각 접근의 측정 방법은 상호 보완적이어서 두 접근의 측정 전략은 서로 중복되는 점이 있는 반면에 뚜렷한 차이점도 있다. 예를 들면, 중복되는 점을 말하면 유형에서 질문지와 면접을 활용하여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차이점에서는 양적 연구에서는 사전, 사후검사를 실시하고

질적 연구에서는 참여관찰을 실시할 수 있다. 모든 종류의 가용한 측정 자료를 활용할 경우 관심 주제를 보다 완전하게 측정하고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셋째, 각 접근은 서로의 접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와줄 수 있다(신경림 1993).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에 먼저 수행되어 양적 연구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거나 양적 연구의 연구문제를 확인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을 도출하는데 기여한다. 또한, 질적 연구를 양적 연구에 선행함으로써 양적 연구를 위한 도구 개발과 양적 연구의 평정 도구나 지표를 구조화하는데 기여한다. 질적 연구 결과로 양적 결과를 증명하거나 경험적으로 유도된 구조의 외적 타당도를 확보하는데 기여한다(선양적, 후 질적). 또한 양적 연구가 질적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이점은 다음과 같다: 대표적인 사례와 비대표적인 사례를 확인함으로써 질적 접근을 보완한다. 양적 접근을 먼저 활용함으로써 후속 면담과 관찰을 유도한다. 총체적 접근의 오류를 교정한다. 다수의 구성원들을 조사하여 정보의 차이를 표출한다. 양적 도구를 활용하여 비형식적 관찰로 수집된 결과를 증명한다.

Goodwin과 Goodwin(1996)은 교육연구에 있어서 방법론상의 논쟁이 별다른 진전 없이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점에 실망을 표시하면서,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 모두가 나름대로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각자 교육에 매우 중요한 지식을 산출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단일 연구에서 질적, 양적 연구를 결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두 연구를 활용할 경우 장점이 서로 보완되어 보다 균

형 있고 심도 있는 이해와 성과를 산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연구 간의 철학적 차이나 패러다임의 차이만을 주장함으로써 연구계를 양극화시키기 보다는 서로의 철학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면 주어진 주제에 가장 적합한 연구방법을 선정하고 나아가 주제와 관련하여 두 접근을 통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영남(2001)은 다섯 가지 목적으로 단일 연구에 질적, 양적 접근을 연계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 1) 삼각검증(triangulation): 동일한 현상을 연구하는데 서로 다른 방법을 활용하는 것으로, 각각의 결과가 수렴될 경우 보다 명확하고 보다 신뢰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2) 상호보완성(complementarity): 한 방법의 결과가 다른 방법의 결과를 강화하거나 정교화 또는 예시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3) 개발(development): 한 방법을 통해 도출된 결과가 다른 방법의 실행을 안내할 수 있다. 4) 선도 (initiation): 의도적으로 역설이나 부인되는 것을 찾아 두 방법의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영역의 경우 또 다른 연구를 위한 재공식화 또는 새로운 연구 영역을 산출할 수 있다. 5) 확장(expansion): 연구의 성과에 대해서는 양적인 방법, 실행을 평가하는 데는 질적인 방법을 적용하는 것과 같이 두 방법을 결합함으로써 연구의 범위와 깊이를 확장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 5. 문헌정보학 분야의 질적 연구

질적 연구가 사회학, 교육학 분야를 비롯한 사회과학분야 전반에서 하나의 연구방법으로

자리 잡은 1980년대 말 이후에 문헌정보학계에서도 질적 연구 도입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 Mellon은 *Naturalistic Inquiry for Library Science* 라는 저서를 출판하여 기존의 도서관 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방법으로서의 질적 연구를 소개하였다. 질적 연구에 대한 최초의 미국 내 학술 회의가 1990년 개최되었는데, 이 회의에서 Smith(1990)는 도서관 정보봉사의 주요 대상인 '이용자'에 대한 파악은 질적 연구를 통하여 탁월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종래의 문헌정보학 연구가 다양한 양적 측정방법을 사용하여 시스템에 대한 이용자의 요구분석과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그다지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지고 오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면 종래에 이해하지 못했던 이용자의 만족에 대한 개념 정의와 함께 장서, 개인 이용자, 기관 및 조직에 속한 인간 활동에 대한 이해를 도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참고정보서비스 분야의 대가인 Carr(1990) 또한 도서관 내부 또는 문헌정보학과 전반에 관련된 기존의 가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체계적이고 엄밀하게 수행된 질적 연구를 통해 조직 내부에서의 활동과 인식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였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근거한 교육과 연구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진 연구는 도서관, 박물관 및 정보기관을 포함한 모든 문화기관의 내적 갈등과 충돌을 치유하고 해결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지적하였다.

질적 연구를 처음으로 소개한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잡지의 1990년도 판에서는 질적 연구에 대하여 상당히 부

정적인 입장에서 소개하였다. 잡지의 객원 편집자인 Davis(1990)는 질적 연구의 도입에 대하여 문헌정보학 분야의 약점인 "소프트한 학문"이 질적 연구로 인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기술적 수준의 질적 연구는 가설을 포함하지 않고, 연구결과로부터 나온 결론을 일반화시키기 어려우며, 질적 연구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사례연구는 연구라기보다는 의견 수준에 머물게 됨으로써 과학적 연구로서의 문헌정보학의 위상을 손상시킬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1993년의 *Library Quarterly* 특집호에서는 질적 연구를 문헌정보학 연구의 한 연구방법론으로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였는데, 이 연구의 목표는 실제 세계에 대한 가정의 맥락에서 발생하는 이슈와 실제세계로서의 질적연구의 내적 기준을 제시하고, 연구자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연구문제에 대한 질적 가정, 이슈, 실제에 대한 적합성을 조사하도록 고무하고, 독자들에게 질적 연구의 보다 정교한 논의를 지적하기 위하여 시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의 이론과 방법론, 그리고 연구사례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네 가지의 이슈인 해석자로서의 연구자, 질적 연구에서 대두되는 본질적인 면, 타인의 경험 이해, 질적 연구의 진위성 등이 언급되었다. 마찬가지로, 1998년도에 발간된 *Library Trends* 특집에서 편집자 Maylone은 질적 연구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였다. 그간의 양적 연구에 치우친 문헌정보학계에 질적 연구가 이론적, 학문적 그리고 방법론적 풍요함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어떤 한 가지 방법론이 다른 것보다 더욱 우월한 것이 아니라 연구의 본질과 목적, 연구

질문, 그리고 연구자의 가치체계와 기술에 따라서 적합한 연구방법론을 사용할 때에 문헌정보학이 학문적으로 한층 성숙해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연구방법론의 대가인 Powell 역시 1999년도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에서 문헌정보학 연구분야에서 새롭게 조명 받고 있는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언급하면서 질적 연구방법의 사용이 박사학위논문을 중심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서관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필요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임을 지적하였다.

국내의 문헌정보학계에서도 문헌정보학 연구에 대한 문제를 다룬 심층적인 연구가 설문원과 차미경(1999)에 의해 행해졌다. 이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방법의 도입이 서구 문헌정보학계와 한국문헌정보학계에 도입된 경과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질적 연구의 특성과 유형, 적용근거 영미 문헌정보학계의 질적 연구, 우리나라 질적 연구의 성격과 향상을 위한 과제를 다룸으로써 기존의 양적 접근에 치우쳐 있던 연구방법론의 다양화를 꾀하려고 시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5가지의 문제가 제안되었는데, 첫째는 질적인 연구의 특성과 유형은 무엇이며 문헌정보학의 적용근거는 무엇인가, 둘째는 영미 문헌정보학계에서는 질적인 연구를 어떻게 적용해 왔나, 셋째는 질적 연구의 질적 고양을 위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가, 넷째는 우리나라 문헌정보학에서 질적 연구는 어떤 성격을 갖는가, 다섯째는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가 등이다. 위의 과제들에 대한 논의를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축약하였다: 1) 질적 연구의 특성은 연구대상자의 관점에서 현상을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서 파악하고, 질적 조사에 의

해 수집된 자료들은 인터뷰나 현장 관찰의 매우 상세한 서술 방식으로 표현되고, 연구결연과정에서 매우 유연하고 비구조적이며 연구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한다. 2) 질적 연구방법은 개념의 성숙하지 않거나 알려진 것이 거의 없는 특이현상이나 사건을 연구할 때 유효하며, 데이터의 주관적인 성격이 강하고 비결정론적인 과장을 포함하는 형태연구에서 질적 방법이 유효하다. 3) 현재 사용하는 지식이나 이론이 편향된 것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 때 혹은 해당 학문의 주류 패러다임에 문제를 제기할 때 사용할 수 있다. 4) “내부자적 관점”에서 어떤 현상을 설명할 때 질적 연구방법을 선택한다고 한다. 또한, 연구자들은 우리나라 질적 연구의 당면과제를 1) 연구자 편견의 배제와 충분한 자료 제시, 2) 연구과정의 유연성과 철저한 조사과정의 확보, 3) 체계적인 연구설계의 3가지로 언급하고, 이를 위해 문헌정보학 이론의 정립과 질적 연구방법론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 6. 한국문헌정보학 분야 질적 연구의 사례

질적 방법의 유형에는 사례연구가 있고 사례 연구에는 조직의 역사에 관한 사례연구, 관찰을 통한 사례연구, 생활사 등이 포함된다. 또 문화기술법, 현상학적 연구, 해석학적 연구, 근거이론, 담론분석이 있다. 아래의 장에서는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질적 연구방법을 가지고 수행된 연구논문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 6. 1 사례연구

사례연구는 하나의 환경이나 한 연구대상자 혹은 한 묶음의 서류, 혹은 한 특별한 사건을 상세하게 조사하고 분석하는 연구방법이다. 이용재(1999)는 대학도서관의 주제서비스를 다룬 연구에서 대학도서관 사서진이 어려운 상황을 주체적으로 극복해나가기 위한 하나의 통로로 '주제서비스'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여기서의 주제서비스란 대학도서관 사서진이 이용자의 주제분야에 맞추어 장서개발 및 참고봉사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논의의 구체화를 위해, 연구자는 부산대학교 도서관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참여관찰·심층면담 등과 같은 다양한 연구기법들을 활용하였다.

### 6. 2 문화기술법

문화기술법은 인류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연구방법론의 하나로 어떤 특정 집단 구성원의 생활 양식과 문화에 대한 폭넓은 자료를 찾아내기 위하여 연구자가 현지에서 장기간 동안 머물면서 참여자의 관점에서 상황을 파악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주된 자료수집 방법은 연구되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을 관찰하는 일이며, 연구자는 직접 참여도 하고, 동시에 관찰자로서의 역할도 하게 된다. 연구현장의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연구현장에 대하여 가장 잘 아는 것은 사실이지만 연구자들이 갖고 있는 보다 폭넓고 객관적인 지식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문화기술법에서는 연구대상자의 주관적인 내부자적 관점과 연구자의 객관

적인 외부자적 관점을 통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종성(2005)이 사서교사의 직무적응 저해요인과 극복방안에 관하여 수행한 문화기술적 연구에서는 사서교사들이 직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만나는 어려움의 내용과 그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대구와 경북지역의 사서교사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하고 일상의 기록을 통해 사서교사들이 생활하는 학교사회의 문화적 구조와 특성을 재구성하여 사서교사가 효과적으로 직무에 적응해 들어가는 데 방해가 되는 조건들에 대해 탐구하였다. 연구결과, 사서교사들이 학교 현장에 잘 적응하여 효과적으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직원회의 개선과 더불어 사서교사 양성 과정의 개선이 요망된다고 지적하였다.

### 6. 3 설문지/ 심층면접

현장관찰이나 인터뷰기법을 통한 비공식적인 연구방법은 이미 생산되어 있는 연구문헌들이 창의성을 결여하고, 또한 문서자료의 왜곡이 심한 우리나라와 같은 연구상황에서는 기록된 문서자료보다 더욱 의의가 크다고 김영기는 주장한다(2005). 이제환(2005)은 동경 지역 한인의 정보행태에 관해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재일한인의 정보행태를 분석하여 재일한인사회의 정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동경지역에 거주하는 한인의 정보행태를 집중적으로 파악한 후, 이 연구에 앞서 수행하였던 오사카지역에 거주하는 한인의 정보행태와 비교하면서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다른 연구에서 노지현(2002)은 정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도서관목록에 대한 연구에서 우리 도서관이 생산해 내는 목록의 현 단계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우리 도서관목록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도서관목록의 유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과정에서 목록을 생산하는 사서의 관점은 물론이고 목록을 이용하는 최종이용자의 관점을 중시하여 목록의 유용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과연 우리의 도서관목록이 도서관이용자들에게 지식정보자원에 대한 주요 접근의 경로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가늠해보고, 목록생산자의 관점과 시각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해 보고자 시도하였다. 김종성(1998)이 행한 다른 연구에서는 1960년대 한국 학교도서관 운동이 전개된 과정을 연구하고 당시의 학교도서관 운동이 확대되는 양상을 지역별 강습회와 전국학교도서관대회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학교도서관계에서 기울인 학교도서관의 제도화 노력과 그 성과를 당시에 노력했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면담형태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 6. 4 일상생활 연구 및 생활사 연구

문헌정보학의 일상생활연구는 정보와 정보시스템 이용에 있어서 보통의 이용자와 잠재적인 이용자들의 연구, 이미지, 만족도 등을 조사하고, 보통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경험과 생활체계를 이해하는 방식을 조사하기 위한 개념과 방법 모두를 포함한다고 한다(김정근, 장덕현 1999). 사람들은 자신이 이용하는 정보를

통하여 스스로 인식하고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실을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 현실구축은 스스로의 개인적 경험과 그를 내부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주관적 지식의 구조, 그리고 상황적 지식 등의 외적인 정보에 바탕을 두고 이러한 틀 속에서 다양한 정보요구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환(2004) 등에 의해 연구된 재일한인의 일상적 정보요구와 정보추구는 일본에 영주하는 한인의 일상을 정보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재일한인의 정보행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재일한인사회와 같은 소수민족사회의 정보환경을 개선하고 정보복지를 구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둔 이 연구에서는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얻기 위하여 일본 현지를 방문하여 관련 기관들과 다양한 계층의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와 심층면담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1) 재일한인이 일상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고민의 유형과 대처방식, 2) 그러한 일상적 고민의 해결을 위해 도움을 청하는 정보소스의 유형과 특성, 3) 일상의 영위를 위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들이 이용하는 정보매체의 유형과 특성, 그리고 4) 그러한 일상 정보의 탐색과 수집과정에서 그들이 경험하는 각종 장애와 한계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장덕현(2005)에 의해 행해진 연구는 도시 저소득층의 정보빈곤 양상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도서관 봉사 방안 연구로서 도시저소득층의 일상적 생활세계를 “정보적 관점”으로 접근하고자 한 질적 연구이다. 자료는 질적 면담과 참여관찰을 통하여 수집, 분석하였으며,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지역의 대도시 저소득계층이 지니고 있는 일상적 정보요구와 정보행태를 밀착 조사하고

분석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이 당면해 있는 정보빈곤의 실태와 이러한 현상을 초래하는 제반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정보빈곤 현상과 정보행태의 소극성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상적 고민의 유형과 대처 방법상의 특성; 일상적 정보를 얻기 위하여 이용하는 매체의 유형과 특성; 그리고 일상 정보의 탐색과 수집 과정에서 경험하는 각종 장애 등의 범주에 접근하였으며, 소외 계층을 위한 공공도서관 서비스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정근과 장덕현(1999)은 문헌정보학에 있어서 일상생활 연구의 방법론적인 면을 연구하였는데 지금까지의 질적 연구의 성과를 검토하고, 특히 문헌정보학에서 일상생활 연구의 함의를 심도 있게 따지고 있다.

김정근과 그의 동료들이 말하는 '현단계 연구'는 눈 앞에 있는 현실을 그대로 기술해 내는 방법으로서 그 방법은 현장에서 논제를 취하고 질적 방법의 연구형태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김영기(2005)는 다양한 현상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하여 연구자의 통찰력을 활용하며 특수성에 대한 해석을 위하여 질적 기법을 채택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이 연구방법론에서는 현 단계 연구의 필요와 특성이 잘 나타나 있으며, 현장 중심의 논제 설정과 질적 방법론 채택, 그리고 그것을 글로 그려내는 문체 등을 중시하게 된 과정을 담고 있다. 연구의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 '사려 깊은 관찰'과 '효과적인 면담'을 통하여 새로운 자료들을 다양하게 발굴하고 '특수성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는' 질적 연구를 채택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양재한(1999)은 창원지역 공공도서관의 성립과정과 사회적 역할 변화과정을 해석하는데 있어

서 창원이 시로 승격된 1980년 이후를 6·29 선언 이전의 공공도서관, 민간도서관의 등장과 지방화 시대의 공공도서관, 주민참여 형태의 마을도서관 시기로 나누어 공공도서관의 성립과정과 역할변화 과정을 해석하고 있다.

## 6.5 담론 분석

김정근과 이수상(1997)은 한국문헌정보학이 각종 사회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발전전략이 무엇인가를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제시된 두 가지 실천전략은 첫 번째, 주체적인 학술 연구의 전략으로서, 연구자들이 기존의 학술논문쓰기 방법을 과감하게 탈피하여 도서관과 관련기관의 일상생활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고 설명할 수 있는 자유롭고 쉬운 양식의 글쓰기 전략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는 학술운동의 전략으로서, 연구자와 현장사서들이 함께 참여하여 우리의 학문적 내실을 다져내며 한국문헌정보학이 한국사회과학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김정근과 김영기(2000)의 "한국 언론학의 탈식민성 담론에 관한 서지연구"에서 필자들은 자신들이 문헌정보학 내부에서 '현단계 연구'의 발전에 참여한 내용을 정리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과학의 여러 하위 분야에서 전개되고 있는 탈식민성 담론의 현상에 주목하게 된 과정을 추적하였다. 김영기(2000)는 "한국 문헌정보학의 현실적합성과 실천성"에서 지난 50년간 우리나라 문헌정보학의 연구주제와 연구방법이 외국의 이론과 기술을 별다른 여과과정 없이 도입해왔음을 지적하고, 나라마다 발전단계나 문화적 전통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고유의 도서관 현장과 그 환경에 대한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외국이론의 적용에 신중하여야 하며, 연구방법의 선택 역시 그 연구주제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김종성(2000)은 디지털 도서관 담론 속에서 학교도서관 담론이 가지는 몇 가지 맥락적 오류를 검토하여 그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고 나아가 우리 학교도서관이 온전히 그 기능을 회복하는 길은 본질적 원리에 천착하여 탐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용재(2005)는 한국 인문사회과학에서의 ‘탈식민성 담론과 한국 문헌정보학에서의 ‘탈식민성 담론’을 살펴보고, 이러한 탈식민성 담론을 바탕으로 한국 대학도서관이 안고 있는 식민주조를 분석하였으며, 한국 대학도서관의 식민성을 탈피하기 위한 담론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수상(2005) 또한 “우리나라 디지털도서관의 전개양상에 관한 연구”에서 김정근과 그의 동조자들이 주장하는 디지털도서관 사상과 주장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에서 디지털도서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전개양상을 분석하였다. 그러한 전개양상을 토대로 현 단계의 디지털도서관의 개발과 디지털도서관의 기본요건, 디지털도서관의 운영체제에 관하여 제안하였다.

## 6. 6 현상학

현상학은 특수한 상황에서 평범한 사람들에게 경험되는 사건과 상호작용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노력하며, 사람 행동의 주관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그들은 연구대상자들이 어떻게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주변사건에 대해 경험하며 이러한 경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그들의 개념적 세계 속으로 들어가고자 한다. 이런 맥락에서 김영기(1998)는 부산지역 공공도서관 장서형성요인을 현상학적으로 추적하였으며, 공공도서관의 사회사를 추적하는 과정에 나타난 <도서변상사건>과 <금서사건>이 장서의 축적 과정에 미친 영향을 현상학적으로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경우 <도서변상사건>과 <금서사건>은 당시의 사회·정치적인 상황이 도서관에 발현된 대표적인 사례로서 공공도서관 직원들의 창의성 말살과 공공도서관 장서의 편향성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영기(2002)는 다른 논문에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디지털 자료실 구축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노출되고 있는 몇 가지 쟁점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와 함께, 인터넷 정보와는 차별성이 있는 디지털 자료실의 콘텐츠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았다. 이를 위해 공공도서관 디지털 자료실 구축사업의 전개과정에 대해 각 공공도서관 디지털 자료실 관리자들과 실무자들의 반응을 중심으로 살펴본 다음, 인터넷과 디지털 자료실의 콘텐츠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공공도서관 디지털 자료실이 PC방 수준을 벗어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 7. 질적 연구방법에 제기되는 쟁점들

1990년대 중반을 중심으로 국내 문헌정보학 연구에서 시작된 질적 연구방법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명백한 하나의 연구 패러다임으로 부

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실증주의적 연구에 익숙한 연구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질적 연구가 과학적인가 또는 객관적인가 하는 점에서 아직도 논란의 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질적 연구방법의 한 단계 상승을 위해서는 분명히 이러한 점들에 관한 쟁점들이 확인될 필요가 있다. 질적 연구방법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쟁점들은 다음과 같다.

### 7. 1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의 병행 사용은 가능한가?

질적 연구방법과 양적 연구방법은 나름대로 장점이 있지만 분명히 단점도 있기 때문에 이 두 방법을 동시에 사용한다면 한 가지 방법만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종종 기술적인 통계자료와 질적인 연구자료가 동시에 제시되기도 하며, 통계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두 변인이 왜 관련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심층면접을 사용하여 질적 분석이 가능한 것이다. 물론 초보 연구자에게는 이 두 방법을 결합시키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난해한 과정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노력을 시도해 보는 것 자체는 자신의 방법의 우수성만 고집하지 않고 타 연구방법에 대한 유연성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의 보완점은 동일한 연구에서 두 접근을 모두 활용할 경우, 결과는 한 가지 접근만을 채택할 경우보다 완벽하고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의 이론적 근거 제공, 가설 도출에 기여할 수 있으며, 양적 연구를 위한 도구 개발과 평정

도구나 지표를 구조화하는데 기여한다. 또한, 양적 연구를 먼저 활용한 후속 면담과 관찰을 유도하기도 하고, 양적 도구를 활용하여 비형식적 관찰로 수집된 결과를 증명한다. 최근에 양적 접근방법을 주장하는 연구자들 사이에 두 연구방법을 병행하려는 움직임이 매우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질적 연구방법을 채택하는 연구자들 사이에는 이러한 움직임이 매우 경직되어 있다. 차후에는 질적 접근방법을 사용하는 연구자들이 보다 유연한 방법론의 보완으로 보다 질 높은 연구 활동을 수행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 7. 2 연구자의 주관성 극복위한 충분한 자료 제시가 되었나?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에 비하여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에 대하여 매우 우호적이다. 이는 질적 연구의 철학적 배경이 되는 해석학적 관점이 인식의 주체가 인식의 대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주관적인 관점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당연한 것으로 판단된다. 문화기술법은 자연스러운 상호적 상황 속에서 연구자가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쉽게 얻기 위해서 연구는 가능한 한 자연스러운 사회적 상황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상황화'는 자료가 수집된 상황에서만 그 자료의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적합하게 서술한다는 점에서는 탁월하지만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문화기술법은 많은 문화장면과 제보자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참여관찰과 심층면담 등의 연구방법

을 통해서 연구상황 하에서의 개인들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에서 연구자의 주관성에 상당히 의존하게 되고, 연구자의 인성이나 관심에 따라서 연구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사회과학적 연구에서의 연구의 객관성의 유지 는 질적 연구에서도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비록 질적 연구방법의 주요 도구가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관찰과 분석은 그의 세계관, 가치, 시각을 통해 걸러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 한다 해도 질적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자의 주관적 측면이 조사과정과 분석내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질적 연구에서는 경험적 사실들을 기반으로 결론을 내려야 하며, 질적 연구자는 얻어진 결론이 연구자의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다양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연구자에 의한 자의적인 해석이 행해진다면 질적 연구로 수행된 연구결과가 교사나 기자, 예술가들이 하는 일과 전혀 다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교사들도 수업을 위해 기록 자료를 모으고, 기자들이 작성하는 보도문도 특정한 사건과 쟁점에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오피니언적인 글을 쓰는 것이다. 소설가와 시인 등의 예술가들도 인간현상에 대한 날카로운 관찰자이기는 하지만 표현하는 글들은 엄정하지 않고 매우 자기 표현적이다. 현재 국내에서 수행된 많은 질적 연구들이 이러한 유의 수사학적이고도 감상적인 글쓰기에 지나지 않는지 다시 한번 고려해 보아야 한다.

### 7.3 연구과정의 철저한 관찰 및 조사과정이 반복수행 되었는가?

질적 연구에서는 철저한 관찰 및 조사과정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과정을 가능한 한 반복함으로써 연구의 타당성은 높아지며 현장에서 관찰하는 동안에도 연구문제와 관찰된 자료와의 대화는 계속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양적연구가 대부분 선형적인 연구절차를 밟는데 반해 질적 연구의 특징은 연구과정이 사이클형 연구 과정을 가지게 됨으로써 유연성을 가진다는 점이다. 선형적인 연구절차에 의하면, 연구과제가 선정되고 사전에 가설이 형성되어 그 가설에 따라 자료를 수집·분석하게 된다. 한편 질적연구는 자료가 수집이 되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가설이 형성되고 수정된다. 지속적으로 수집되는 자료가 그 가설에 대해 부정적인 결과를 보이면 앞서 형성되었던 잠정적인 가설을 수정하게 된다. 이는 흡사 탐험가가 어떤 탐험 계획은 갖고 있으나 그 분야에 대해 잘 몰라서 예기치 않게 발견된 것을 토대로 하여 계획을 언제라도 수정을 가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연구자는 연구문제를 재고하고 더 심층적인 탐색의 가능성을 모색하며 필요한 경우 연구계획을 수정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연구의 타당성은 높아지며 현장에서 관찰하는 동안에도 연구문제와 관찰된 자료와의 대화는 계속되는 것이다. 따라서 질적 연구에서는 철저한 관찰 및 조사과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많은 질적 연구에서 범하기 쉬운 오류는 연구자의 목적의식이 너무 강할 경우에만담 내용을 통해 드러난 사실에 입각하여 결

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가 이미 갖고 있던 생각에 따라 결론을 유도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국내 문헌정보학계에서 행해진 질적 연구는 도서관의 왜곡현상을 고발하거나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예리하게 지적하는 등 현실을 까발리는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과정에서 지나친 공명심에서 연구자의 목적의식 또는 선입견이 자주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과정 내지는 자료수집과정은 극소수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 철저하고도 반복적인 자료수집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경우도 있다.

#### 7. 4 타당도와 신뢰도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 설계가 되었는가?

무릇 연구에 있어서 타당도와 신뢰도는 연구를 성공시키는 양대 산맥이며, 연구에 있어서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연구가 체계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연구문제의 제기, 선행연구의 개관, 연구방법의 설정, 자료수집 및 분석, 결론의 도출의 각 단계로 이루어진다. 그 과정이 선형적이건 사이클형이건 말이다. 그러나 대개의 국내에서 이루어진 문헌정보학 분야의 질적 연구는 이러한 과정을 무시한 경우가 많다. 특히 연구 방법 설정 및 자료수집 방법 등에서 상세한 설명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체계적인 연구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현재 질적 연구방법으로 수행된 연구 중에서 아주 소수의 연구만이 연구방법 상에서의 체계성의 원칙을 따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양재한

(1999)에 의한 “창원지역 공공도서관의 성립과정과 사회적 역할 변화과정” 연구는 창원지역 공공도서관의 성립과정의 사회사와 그 역할의 변화과정을 해석하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으며 연구의 형태는 일상생활사 연구이다. 이 연구는 일반적인 질적 연구와는 달리 ‘연구방법과 자료’라는 항목을 따로 두어서 연구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해 주고 있으며, 인터뷰를 위하여 당시 도서관을 일상적으로 이용하던 이용자 12인의 선정과정에 관한 설명이 제공되어 있다. 또 다른 하나의 사례는 이제환(2005)에 의해 행해진 ‘동경지역 한인의 정보행태에 관한 연구’로서 이 연구도 일상생활연구의 형태로 이루어진 질적연구의 전형적인 연구이다. 많은 질적 연구들이 연구의 필요성 연구의 목적, 연구의 방법 등에 대하여 매우 피상적으로 또는 등한히 기술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연구의 서론부분에서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그리고 연구의 대상과 방법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과 연구절차 등에 관하여 자세히 서술하고 있어서 체계성을 갖추고 있다.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가 내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원적 접근법, 즉 다수의 조사자를 활용하고, 여러 가지 자료 출처를 조사하며, 자료수집 시 인터뷰, 자료 분석, 관찰, 문헌검토 등 다양한 방법들을 같이 사용한다. 또한, 조사결과를 구성원 즉 연구대상자가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연구자의 독단성을 배제할 수 있으며 연구대상자들이 소외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다. 즉 면담 후에 면담 기록을 확인하도록 한다. 또, 연구자의 이론적인 지향 등을 명백히 밝힘으로써 연구와

이론의 합치성 내지 동일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 7. 5 다양한 질적 분석 도구를 활용하였는가?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질적 분석의 도구에는 목록(list), 표(table), 분류표(taxonomy), 계보표(family tree), 그림(figure), 다이어그램(diagram), 그래프(graph), 과정표(flow chart), 인과사슬(causal chain), 순환표(daily/monthly/yearly cycle), 통로표(channel), 대차대조표(balance sheet), 프레임(frame), 지도(map), 관계망(network) 등 다양한 것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질적 연구자들, 특히 문헌정보학 분야의 연구자들이 활용하고 있는 분석의 도구는 거의 표 등의 한두 가지 정도로 제한되어 있다는 느낌이 든다. 그 점에서 자료를 분석하는 다양한 질적 기법의 개발과 보급은 향후 우리 문헌정보학계 질적 연구자에게 주어진 큰 과제 중의 하나이다.

지금까지 질적 연구분야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해석적 도구는 주제(theme), 전략(strategy), 유형(pattern)인 것 같다. 앞으로는 문법(grammar), 양식(style), 모델(model) 등 보다 다양한 해석 도구를 개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연구 결과를 제시하는 방식으로는 관찰과 면담자료에 더하여 연구자 자신의 자의적인 해석의 형태가 지배적이고 이러한 도구들을 잘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해석의 자의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질적 연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이러한 형태 이외에도 앞에서 열거한 다양한 분석/해석 도구들을 표현도구로 변형하

여 활용함으로써 연구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다양한 분석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문헌정보학 분야의 질적 연구과정에 이러한 도구들을 사용하게 되면 보다 정교한 연구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 7. 6 자료의 분석과 해석에서 엄밀성을 지니고 있는가?

지금까지 질적연구에서 자료를 분석한다는 것은 관찰된 단순한 '사회적 상황'에서 '문화적 장면'을 발견하기 위해서 문화적 의미의 '부분' 혹은 요소를 발견하고 나서 그것들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가를 찾아내는 작업이었다. 그러한 방법상의 문제점은 질적 연구방법으로 수행된 연구가 엄밀성이 결여되어 너무 저널적이고 오피니언에 치우쳤다는 비판의 근거가 되었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 '사실적 기술에 근거한 질적 연구방법'에 대한 엄밀성 결여를 비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질적 데이터라 하더라도 데이터에 대한 분석과 해석을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분석적으로 시도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이제환, 이연옥, 장덕현 2004). 이러한 경향이 의미하는 바는 연구자의 역할은 자신이 수집한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조사자의 역할과는 다르며, 연구자의 관점에서 분석 및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종래의 질적 연구에 반하여 이상적인 질적 연구는 연구자의 '합리적인 사고'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따라서 연구결과에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양적 연구와 마찬가지로 질적 연구가 가치를 가지려면 이론적

인 기반을 가져야 하며, 이러한 이론적인 기반은 현실성 있는 데이터에 기초한 조사와 분석 작업에서 가능하며, 민족기술지적 연구를 시도하는 그룹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즉, 지금까지 질적 연구의 주요한 연구방법인 현장조사를 예로 들면, 종래에는 현장조사 자료에 나타난 내용과 상황과 연구대상의 문화 그 자체로서 현장조사의 가치를 부여받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자료 분석의 엄밀성과 객관적인 해석을 주장하는 새로운 그룹의 사람들은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자료 그 자체 보다는 자료의 분석의 엄밀성과 연구자의 냉정한 해석을 통하여 인식되는 것이 더욱 질적 연구를 연구답게 한다는 것이다. 이제환 등(2004)은 비록 질적 연구가 현장 위주의 현실에 기반한 연구라 하더라도 단순한 자료의 수집보다는 연구자의 해석에 의한 활용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또 이러한 연구방법에서의 변화는 정보행태 연구의 패러다임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의 정보행태 연구가 단순한 정보 수요조사나 정보매체와 시스템 등에 관한 선호도 조사에서 1980년 후반기에 들어와서 개인의 정보요구 생성과 정보추구 및 이용행태는 개인의 인지구조와 함께 개인의 처해진 정보환경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결과들이 나오면서 개인의 정보환경을 개선해야만 정보추구 및 이용행태가 나아질 수 있다는 가정의 '이론적 근거'로서 이러한 연구결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또 지금까지 우리 학계에서 소외집단의 정보행태와 정보환경에 대한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접근을 소홀히 했다고 주장하며 단순한 공감의 아닌 자료의 분석과 연

구자의 객관적인 해석을 통해서 이들을 위한 정보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자고 독려하고 있다.

## 8. 결 론

최근 문헌정보학 연구의 특징 중의 하나는 문헌정보학 연구의 방법론이 양적 연구 위주로 지나치게 편향되어 있으며,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는 대안으로 질적 연구 연구방법을 적용한 연구논문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한 가지 연구방법만을 사용할 때 나타나는 편향성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현상이다. 특히 김정근이 주장하는 것처럼 문헌정보학 분야 연구에 있어서 도서관 현장이라는 환경은 '사서'와 '이용자'라는 "인간적"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들 요소의 연구를 위해서는 실증주의에 기반한 계량적 접근방법보다는 관계와 과정을 중시하는 질적 접근방법이 더욱 적합할 수도 있다. 물론, 질적 방법과 양적방법이 각각 특유의 연구방법과 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문제의 성격에 따라 어느 연구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때로는 연구 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두 가지 연구방법을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관성, 신축성, 자기임의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질적 연구방법을 잘 못 사용한다면 양적 연구방법보다 그 폐해는 더욱 심각할 수도 있다. 사실상 현재 문헌정보학계에서 질적 연구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일부 연구에서는 이러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서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우려

를 낳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 연구는 아직까지 문헌정보학 분야 연구자들에게 그리 낮익지 않은 연구형태인 질적 연구의 특성과 다양한 유형을 살펴보고, 양적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질적 연구를 연구답게 구성하는데 기여하는 질적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그리고 이들을 저해하는 요인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는 양립될 수 없는 개념인지 아니면 양립이 가능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양자의 공통점과 보완점을 찾아보았다. 마지막으로 국내 문헌정보학계에서 수행된 질적 연구의 수준을 기늩해 보고, 질적 연구방법으로 수행된 연구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국내 문헌정보학계 연구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질적 연구의 주요 유형은 연구자마다 달리 구분되는데 현상학, 문화기술, 사례연구, 상향이론 등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문화기술 연구를 자연주의적, 해석학적, 사례연구, 참여관찰, 현상학적 연구 등으로 다양하게 별칭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들은 총체적, 관점, 자연주의적 지향, 비처치, 비조작, 맥락 지향성, 참여자의 관점 강조, 관정과 변화 지향 직접 자료 수집, 풍부한 기술적 자료, 일차적 도구로서의 연구자, 개인적 접촉, 융통성 있는 설계, 귀납적 분석, 의미와 이해의 발견, 장기간의 현장 활동 등의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의 공통점은 상당히 많은데, 먼저 두 접근방법이 모두 지식 산출을 목표로 하고, 연구방법상의 엄격성을 지니고 있어서 연구자의 체계적, 전문적인 역할 수행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두 연구 모두

결과를 출간하거나 학회나 네트워크를 통해 전파하며, 산출된 지식을 현장 실행기들과 공유한다는 점에서 두 접근은 동일한 책임감을 지니고 있다. 또한, 두 연구 모두 관찰과 면접 질문지 등의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연구 노력의 신빙성을 입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의 보완점을 언급하면, 첫째, 각 연구를 통해 산출된 지식은 상호보완적이어서 두 접근을 모두 활용하면 한 가지 접근만을 채택할 경우보다 완벽하고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두 접근의 측정 전략은 서로 중복되는 점과 차이점이 있어서 모든 종류의 가용한 측정 자료를 활용할 경우 관심 주제를 보다 완전하게 측정하고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1990년대 중반을 중심으로 국내 문헌정보학 연구에서 시작된 질적 연구는 이제 하나의 뚜렷한 연구방법으로 부각되었지만 질적 연구의 과학성, 객관성, 엄밀성 등에는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질적 연구방법의 한 단계 상승을 위해서는 분명히 이러한 점들에 관한 쟁점들이 확인될 필요가 있다. 질적 연구방법과 관련하여 본 연구자가 제기한 쟁점을 6가지로 정리하여 보았다: 첫째, 질적 연구방법과 양적 연구방법은 나름대로 장점이 있지만 분명히 단점도 있기 때문에 이 두 방법을 동시에 사용한다면 한 가지 방법만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양적 접근방법을 사용하는 연구자들의 논문에는 이러한 움직임이 매우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질적 연구방법을 채택하는 연구자들 사이에는 이러한 움직임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질적 연구는 연구자의 주관성

에 상당히 의존하게 되어 연구자의 인성이나 관심에 따라 연구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사회과학적 연구에서의 연구의 객관성의 유지는 질적 연구에서도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연구자의 주관적 측면이 조사과정과 분석내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질적 연구에서는 경험적 사실들을 기반으로 결론을 내려야 하며, 질적 연구자는 얻어진 결론이 연구자의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다양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셋째, 질적 연구에서는 철저한 관찰 및 조사과정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과정을 가능한 한 반복함으로써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은 높아진다. 넷째, 질적 연구가 체계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연구문제의 제기, 선행연구의 개관, 연구방법의 설정, 자료수집 및 분석, 결론의 도출의 각 단계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행해진 상당한 양의

질적 연구는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연구의 대상과 방법, 및 자료수집 방법 등에서 상세한 설명이 없고 데이터만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서 타당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연구방법상의 체계성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질적 연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분석/해석 도구들을 표현도구로 변형하여 활용함으로써 연구의 정교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단순한 사실적 기술과 주장에 근거한 질적 연구방법이 엄밀성을 결여했다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질적 데이터라 하더라도 데이터에 대한 분석과 해석을 객관적이고 분석적으로 시도하여 양적 연구와 마찬가지로 질적 연구가 이론적인 기반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질적 연구가 현장 위주의 현실에 기반한 연구라 하더라도 단순한 자료의 수집보다는 연구자의 해석에 의한 활용이 중요하다.

## 참 고 문 헌

- 김영기. 1998. 현상학적으로 본 부산지역 공공도서관 장서형성요인 - 한국사회 지식흐름의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2(3): 113-126.
- 김영기. 2000. 한국 문헌정보학의 현실적합성과 실천성.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4(2): 191-209.
- 김영기. 2002. 디지털 자료실 구축 과정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 - 인터넷 콘텐츠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3(3): 153-169.
- 김영기. 2005. 탈식민주의 글쓰기와 장서 연구 - 도서관 장서의 편향성에 관한 사회사상적 접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6(1): 173-193.
- 김정근, 김종성. 1997. 현 단계 학교도서관 문제에 관한 연구전략.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1(3): 23-51.

- 김정근, 김영기. 1996. 공공도서관 이용자 문제의 재인식: 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비교 연구. 『학술연구에서 글쓰기의 혁신은 가능한가』. 김정근 역음, 서울 한올아카데미: 41-95.
- 김정근, 김영기. 2000. 한국 언론학의 탈식민성 담론에 관한 서지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1(1): 63-86
- 김정근, 이수상. 1997. 현 단계 한국문헌정보학의 발전전략.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1(1): 125-151.
- 김정근, 장덕현. 1999. 문헌정보학에 있어서 일상생활 연구의 방법론적 함의 - 최근 연구동향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0(2): 55-75.
- 김종성. 1998. 1960년대 한국 학교도서관 운동의 전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2(3): 45-80.
- 김종성. 1999. 한국 학교도서관 운동 쇠퇴의 심층구조와 교육 왜곡.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0(4): 299-326.
- 김종성. 2000. 디지털 도서관 담론 속에서 우리 학교도서관의 길 찾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4(2): 159-173.
- 김종성. 2005. 현단계 우리 학교도서관 발전의 리더십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9(2): 259-286.
- 김종성. 2005. 사서교사의 직무적응 저해요인과 극복방안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6(1): 237-268.
- 노지현. 2002. 정보환경의 변화와 도서관목록의 현단계.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6(3): 133-153.
- 박인웅, 이연옥. 1998. 공공도서관 자료선정과 구입의 현단계. S도서관 사례를 중심으로. 『학술연구에서 문화기술법이란 무엇인가』. 서울: 한올아카데미: 216-255.
- 설문원, 차미경. 1999. 『문헌정보학에 있어서 질적 연구의 의의와 과제』. 이화여대 문헌정보학과 창립 40주년 기념논문집. 65-92.
- 신경립. 1993. 연구전통의 통합. 최영희 편저. 『질적 간호연구』, 361-377. 서울: 수문사.
- 신옥순. 2004. 질적 연구에서 타당도의 의미. 『교육논총』, 경인교대 초등교연구소, 23: 1-9.
- 양재한. 1999. 창원지역 공공도서관의 성립과정과 사회적 역할 변화과정.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0(3): 255-294.
- 이수상. 2005. 우리나라 디지털도서관의 전개양상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6(1): 131-150.
- 이용재. 1999.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주제서비스의 현단계 - 부산대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0(3): 385-404.
- 이용재. 2005. 한국 대학도서관경영 연구의 탈식민성 담론 전략.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6(1): 151-172.
- 이제환. 2005. 東京지역 韓人의 정보행태에 관한 연구 - 오사카지역 韓人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6(1): 91-116.
- 장덕현. 2005. 도시 저소득층의 정보 빈곤 양상

- 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도서관 봉사 방안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6(1): 219-236.
- 조영남. 2001.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 『초등교육 연구논총』, 대구교대. 17(2): 307-329.
- 조용환. 1999. 질적 연구의 동향과 과제. 『교육 인류학연구』, 2(1): 91-121.
- Bradley, J. and B. Sutton. 1993. Reframing the paradigm debate. *Library Quarterly*. 63(4): 404-410.
- Bradley, J. 1993. Methodological Issues and Practices in Qualitative Research. *Library Quarterly*, 63(4): 431-449.
- Carr, D. M. 1990. Qualitative Meaning in Cultural Institution.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31(3): 97-104.
- Davis, C. H. 1990. On Qualitative Research.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12(4): 327-328.
- Ellis, D. 1993. Modelling the Information-Seeking Patterns of Academic Researchers : A Grounded Theory Approach. *Library Quarterly*. 63(4): 469-486.
- Förhmann, B. 1994. Discourse Analysis as a Research Method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16(2): 119-138.
- Gay, L.R. & P. Airasian (2000). *Educational Research : Competencies for Analysis and Application*. New Jersey : Prentice-Hall. 조영남(2001). 질적연구와 양적연구. 대구대 『초등교육 논총』, 17(2): 307-329에서 재인용.
- Goetz, J. P. and M. D. LeCompte. 1984. *Ethnography and Qualitative Research in Educational Research*. San Diego: Academic Press. 조영남(2001).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 대구대 『초등교육 논총』, 17(2): 307-329에서 재인용.
- Goodwin, W.L. and L.D. Goodwin(1996). *Understand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NY : Teachers College Press.
- Kuhlthau, C. C. 1993. *Seeking, Meaning : A Process Approach to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Norwood, N.J.: Ablex.
- Lincoln, Y. S. and E. G. Guba. 1985. *Naturalistic Inquiry for Library Science : Methods and Applications for Research, Evaluation and Teaching*. NY : Greenwood.
- Powell, R. R. 1999. Recent Trends in Research : A Methodological Essays.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21(1): 91-119.
- Smith, K. 1990. Diversity and Direction : The Role of Qualitative Research in Information Centers.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1: 91-96.
- Sutton, B. 1993. The Rationale for Qualitative

- Research : a Review of Principles and Theoretical Foundation. *Library Quarterly*. 63(4): 411-430.
- Tuominen, K. 1997. User-Centered Discourse: An Analysis of the Subject Positions of the User and the Librarian. *Library Quarterly*. 67(4): 350-371.
- Westbrook, L. 1994.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A Reviews of Major States. Data Analysis Techniques, and Quality Controls.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16: 241-254.
- Wolcott, H.(1990). On Seeking-and Rejecting Validity in Qualitative Research. In E. Eisner and A. Peshkin (eds.). *Qualitative Inquiry in Education: The Continuing Debate*. NY : Teachers College Press. 121-128.

K C I

к с і